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5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전자전기과 강혁기 과장(044-203-4340), 장미연 사무관(4342)

제조 사물인터넷(IoT)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자신산업 육성

- 전자신(新)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, 정책 세미나 개최 및 제품시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, 이하 산업부)는 5.18.(월)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전자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제조 사물인터넷(이하 IoT)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.

○ 협약식에는 삼성, LG 등 대중소 전자업체*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하였으며, IoT 기반의 전자신산업** 도약을 위해 대-중소기업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.

* 삼성전자, LG전자, 동부대우전자, 코웨이, 리홈쿠첸, 위닉스, 아이센스, 대덕전자 등 협약업체와 100여개 전자업계 참여

** 전자신(新)산업 : 사물인터넷(IoT), 가상현실(VR) 등 전자 신기술을 가전, 의료 등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,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제품 제조업으로 차세대 전자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는 분야임

① IoT 협업 생태계 구축

- 대중소 전자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, 대기업은 자체 플랫폼(platform)을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생태계를 확장하고, IoT 활용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동개발·표준화 논의에 참여한다.

- 이를 위해 「전자IoT 협업센터」를 구축하여('15년 하반기), 삼성·LG 등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IoT 융합제품 개발, 플랫폼 연동,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, 기술 공유 등을 추진하는 장(場)을 만든다.

* 전자IoT협업센터 : 대기업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기술, 인력양성, 수출을 지원하는 협업공간

② 제조협업 생태계 구축

- 중소기업이 스마트·IoT 융합 가전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, 대기업, 협력사 및 지역 거점기관*이 보유한 공용·유휴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.

*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, 동반성장밸리 등 연계 추진

- 이를 위해 전자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용·유휴설비 현황 및 수요를 조사하여 장비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.('15년 하반기)

- 올해는 중소가전 제조사의 수요가 많은 시험·검사장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, 내년부터 생산설비의 임대·이전까지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.

* 스마트·IoT 융합 가전은 센서·통신칩 탑재, 타 기기와의 연동 등으로 인해 제조공정에서 시험·검사장비 활용 수요 및 비용 증가

□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'제조혁신 3.0 실행 대책'의 후속조치이자,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 중 세부과제인 융합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,

○ 전자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리 전자업체들이 서로 협업하는 개방형 기술개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○ 우리가 가진 세계 1위 가전제조사의 강점을 기반으로, 대중소 협력을 통해 애플·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수준의 플랫폼을 확보하고, 중소가전·부품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윤상직 장관은 "최근 전자산업의 환경이 한 기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어졌으며, 협업을 통해 차세대 전자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"이라고 언급하며,

○ “특히, 가전산업은 IoT 최대 시장 중 하나로 가장 빠르게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서,

* IoT연결 기기: ‘20년 생활가전 43억 개, 자동차 13억 개, 헬스케어 7.7억 개
* 스마트홈 시장: ‘14년 480억달러→ ’19년 1,115억달러(연평균성장율 19.8%)

○ 대중소 기업의 전략적 협업, 지원기관의 기반조성, 정부의 정책지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우리 명품 가전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”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의를 강조했다.

○ 또한, “최근 1인가구 증가,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가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,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을 발판으로 업계가 함께 노력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아울러, 이날 제품 시연장에서는

○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 하드웨어 플랫폼*(ARTIK)을 공개하였으며,

* IoT 하드웨어 플랫폼 : 프로세서, 센서, 구동기 등을 하나의 보드에 구현하여 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부품

○ LG전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홈챗을 통해 가정내 다양한 제품이 연동되는 모습을 시연하는 등 “Smart” → “플랫폼과 생태계” → “Connect & New”로 구성한 전시장에서 국내 사물인터넷 선도 기업들이 제품 시연을 통해 전자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.

【 참고 1 】 행사 개요
【 참고 2 】 전시출품 제품
【 참고 3 】 전자신산업 상생협력 추진방향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장미연 사무관(☎ 044-203-4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전자신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(안)

□ **일시/장소 :** ‘15.5.18(월), 르네상스 서울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

□ **참 석 자 :**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가전업체 8개사 대표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, 전자부품연구원 원장, 업계 담당자 등 200여명

□ **주요내용 :** 전자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및 차세대 전자산업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발굴 세미나

□ **세부 프로그램**

○ 전시 ⇒ 업무협약 ⇒ 세미나

시 간			내 용	비 고
전 시 (20′)	13:00-13:02	2‘	전시장 이동	다이아몬드 1홀
	13:02-13:22	20‘	IoT 제품 시연	참석자
업무협약 (30′)	13:22-13:24	2‘	협약장소 이동	-
	13:24-13:27	3‘	참석자 소개	사회자
	13:27-13:30	3′	추진경위	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
	13:30-13:36	6‘	업계의견	참석 기업
	13:36-13:39	3‘	격려사	산업통상자원부 장관
	13:39-13:49	10‘	협약식	산업통상자원부, 업계, 지원기관
	13:49-13:55	6‘	사진촬영	
세미나 (95′)	14:30-14:35	5‘	개회사	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
	14:35-14:50	15‘	전자신산업 경쟁력 강화정책	산업통상자원부
	14:50-15:10	20‘	IoT HW 플랫폼 및 사례	삼성전자
	15:10-15:30	20‘	IoT SW 플랫폼 및 사례	LG전자
	15:30-15:50	20‘	국내외 IoT TV·가전산업 사례	전자부품연구원
	15:50-16:05	15‘	IoT기반 스마트 홈케어 사업 사례	코웨이
	16:05-16:15	10‘	질의응답	

□ 세부 내용

① 전 시(20′) : "IoT 협업을 통한 전자신산업의 미래"

- 기존 제품에 IoT를 융합한 차별화 제품 전시, 삼성·LG 및 중소 가전(밥솥, 제습기 등) 이기종간 연동을 통한 생태계 비전 제시

(현재)Smart	⇒	플랫폼+생태계	⇒	(미래)Connect & New
중견, 중소기업 가전·헬스케어·에너지		HW플랫폼 SW플랫폼		플랫폼 + 게이트웨이 + 가전, 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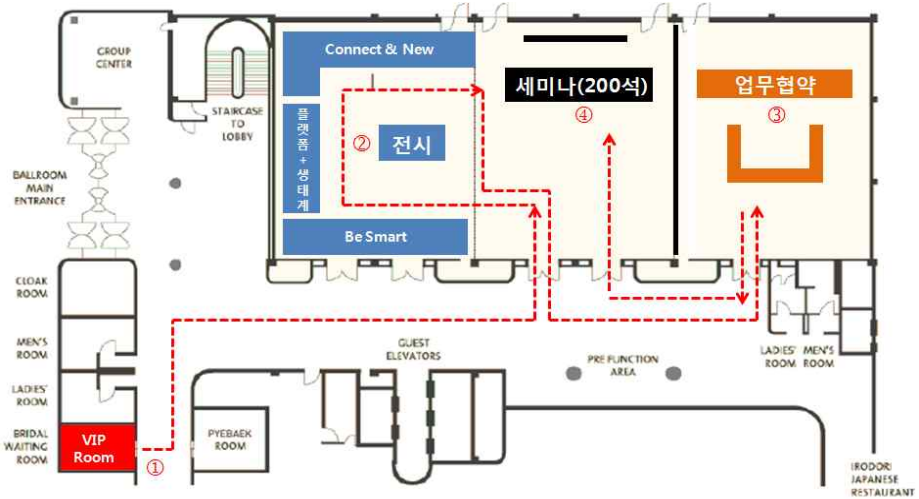
* (전시흐름) ①Smart : 스마트가전 및 전자제품의 현황
②플랫폼+생태계: HW, SW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구축을 설명
③Connect & New: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연결된 제품과 전자신산업 비전 제시

② 상생협력 협약식(30′) : "전자신산업 상생협력 MOU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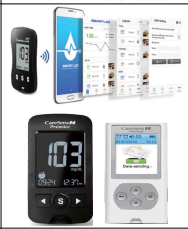
- 전자新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경위 보고 (전자진흥회)
- 산업계·정부·지원기관간 협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

③ 세미나(95′) : "전자신산업 육성정책과 주요기업 동향 및 사례"

- 정부정책방향 발표, 삼성·LG 등 대기업의 IoT 플랫폼 정책 공유, 중소가전·부품기업의 IoT 융합사례 발표 등



참고2 전시 출품제품

연번	제품사진	회사명/제품명	제품 설명
1		삼성전자/IoT HW 플랫폼	- 제품개발 및 양산 동시 지원 - 로컬 클라우드와 HW기반 보안 차별화
2		LG전자/LG 홈챗	- 홈챗을 통한 스마트홈 구현 - 다양한 제품 연동을 통한 미래 스마트홈 구현
3		동부대우전자/냉장고 클라쎄큐브, 세탁기, 프라이어 오븐/ 가전행복스토리	- NFC 대용량 3도어 스마트 냉장고 - WiFi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 - WiFi 복합 오븐
4		리홈쿠첸/클래식 와이파이/	- 사용자 중심 스마트 APP - 취사(예약)부터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조작 가능
5		㈜위닉스 / 제습기, 공기청정기	- I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: 실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질 자동 관리
6		아이센스 /CareSens N NFC, CareSens N Premier, CareSens N MessengerSmartLog	- NFC/Bluetooth/3G 무선 통신 적용 혈당 측정기 - 혈당값 분석 및 결과 보고, 당뇨 관리
7		(주)휘트닷라이프 Fitmter BLE(휘트미터 BLE) 운동관리스토리(시연)	- 세계최고 수준의 정확하고 쉽고 스마트한 운동관리 솔루션 - 개인의 운동능력과 질환에 따른 맞춤형 운동 목표 부여
8		다원디엔에스/파워매니저/ "정확히 알고 쓰는 전기, 가정경쟁력"	-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/어디서나 가전기기의 실시간 소비 전력 모니터링 및 전원 컨트롤 - 기존 가전의 개발변경 없이 스마트 가전의 전력관리 가능

참고3 전자신산업 상생협력 추진방향

1. 추진 배경

□ (정책현황)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'제조혁신 3.0 실행대책'의 주요과제로서 "8대*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"의 후속조치 추진

* 사물인터넷, 3D프린팅, 홀로그램, 클라우드, 에너지절감, 스마트센서, 사이버물리시스템, 빅데이터

□ (산업동향) 글로벌 전자 선도기업들은 IoT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 기반 생태계 조성을 집중 추진

□ (국내현황) 세계1위 가전제조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대기업의 플랫폼 개발은 가속되나, 중소형가전 등 이기종간 협업 생태계는 미성숙

□ (추진방안) 차세대 가전·IoT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, IoT 융합제품 개발 및 제조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"전자신산업 상생협력" 추진

2. 주요 내용

□ **사물인터넷(IoT) 협업 생태계 구축**

○ 전자IoT협업센터* 구축('15.下)을 통한 제조 IoT 상생협력 거점 마련

* 대기업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기술, 인력양성, 수출을 지원하는 협업공간

○ IoT HW·SW 플랫폼 보급·확산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

○ 대중소 협업 및 이업종 연계 IoT 융합 제품 개발

○ 'IoT확산 포럼' 운영을 통한 기술공유 및 BM개발의 場 마련

□ **중소가전 제조 협업 생태계 구축**

○ 검사, 시험장비 중심의 제조설비 공동활용 시범사업 추진('15.下~)

○ 유휴 생산설비 및 시설 공동 활용으로 확대('16~)

⇨ **전자신산업 상생협력 MOU 체결 추진**
산업부, 업계(삼성전자, LG전자, 동부대우전자, 코웨이, 위닉스, 리홈쿠첸, 대덕전자, 아이센스), 지원기관(전자진흥회, 전자부품연구원)